

여의도 `파크원` 내달부터 건축공사 돌입

16일 토사 100만㎥ 반출 기념행사 가져

입력 : 2008.10.17 09:34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서울 여의도에 짓는 파크원(Parc1)이 본격적인 건축공사에 돌입한다. 다국적 부동산개발업체 스카이랜 그룹((Skylan Group)은 서울 여의도에 짓는 파크원(Parc1)이 터파기공사를 사실상 마무리 짓고 오는 11월부터 하부 건축공사에 돌입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16일 스카이랜 그룹은 여의도 공사현장에서 토사반출 100만㎥ 달성기념행사를 가졌다. 100만㎥ 토사반출은 국내 단일 공사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파크원(Parc1)은 72층과 54층 규모로 구성된 두 개의 오피스 타워, 지상 8층 쇼핑몰, 국제 비즈니스 호텔로 구성되는 복합용도개발 프로젝트다. 서울시 여의도 22번지 일대 면적 4만 6465㎡의 부지에 총 연면적 63만 361㎡ 규모로 지어지고 있다.

미래에셋증권이 `파크원(Parc1) 빌딩`의 오피스타워 부문을 약 9000억원에 매입키로 한 상태다.

파크원은 프리츠커상 (Pritzker Prize)을 수상한 세계적인 건축가 리차드 로저스경 (Lord Richard Rogers, 영국)이 총괄하며 스카이랜 그룹 (Skylan Group)이 개발, 총괄 운영, 감독을 맡고 시공은 [삼성물산\(000830\)](#) 건설부문 맡고 있다. 완공은 2011년 예정으로 하고 있다.



▲ 스카이랜 마이크 월시 부사장이 파크원 현장 100 만^m 토사반출 달성을 기념해 7 만 9128 번째 토사 반출 트럭 운전기사에게 꽃다발을 전하고 악수를 나누고 있다.

이데일리 윤진섭 yjs@
<저작권자©이데일리- 1 등 경제정보 멀티미디어>

http://www.edaily.co.kr/news/land/newsRead.asp?sub_cd=DF12&newsid=01541606586573904&clkcode=00203&DirCode=0080103&curtype=read